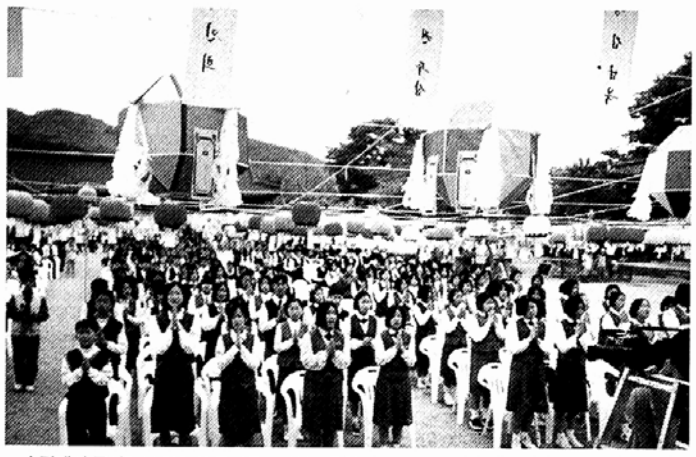
종립학교를 가다

(9) 금산 중·상업고등학교

학생중심 다양한 독서활동 '눈길'

1945년 금산사와 내장사 스님들은 불교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재를 출연해 금산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스님들 사이에는 학교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전주 같은 큰 도시에 학교를 세우자는 의견과 사찰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학교를 세우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던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의 유일한 종립학교인 금산중·상업고등학교는 사찰이 지역주민과 떨어져 살수 없다는 노장스님들의 뜻에 따라 이곳 금산사 사하촌인 김제군 금산면에 중학교를 1947년, 고등학교 1955년에 각각 설립됐다. 이는 해방이후 학교들이 주로 시 단위급 도시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금산중·상업고등학교는 반세기동안 지역사회 교육의 메카로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진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장면

이후 1967년 동국학원에 병합되어 발전을 거듭해온 금산중·상업고등학교는 반세기동안 인근 10여개 면 주민들에게 '불교정신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자기완성과 불국 정토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자'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 지역 사회 교육과 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 사무자동학과 166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다. 이에 금산중·상업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의 실천을 통해 성적 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대승불교의 사상 가운데 보살의 실천강령인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인성기르기는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정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주된 교육내용이다.

45년 금산사·내장사서 설립
주민에 무료 컴퓨터 교육

정서함양과 창의력 계발을 위한 독서교육의 활성화도 넓은 교양과 풍부한 상상력을 신장시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창의력을 배양시킨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 주도의 독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학교와 다른 금산만의 독서교육의 특징. 특히 지역 원평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단순 독후감 쓰기 위주의 독서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독서노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전교생 1개이상 자격증
육바라밀 생활화 운동 펴

이외에도 금산상업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실업교육을 실시해 전교생이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금산중·상업고등학교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학교다.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자비동산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고, 매년 수차례 정보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강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 창달의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곳곳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수행도량이다. 87년 교직원, 동문, 지역 불자들의 도움으로 교내에 미륵 부처님을 봉안했고, 매년 부처님오신날 관불행사등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교직원 전원이 인근 화엄불교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불교교육을 받은 포교사로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선원이 있는 사찰과도 같은 수행의 열기를 느낄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도시집중화로 이농현상이 더욱 심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금산중·고등학교드 학생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 소재지에 있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교수, 군 장성, 공인회계사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금산은 동국학원 오녹원 이사장 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총 공사비 10억원을 투입해 신축교사를 짓고 있다. 신축교사가 올 10월 완공되면 최신 시설과 최고의 학습 환경을 제공,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교법사실에서

"눈빛만 봐도 고민 알죠"

채규수·박동창 교법사



중학교 채규수(사진 좌) 교법사는 국어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다.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눈빛만 보아도 알 정도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아빠 같은 선생님으로 통한다.

진주에 있는 화엄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로도 활동 중인 채 교법사는 학교에서의 교법사 역할 이외에도 청소년 운동에 관심이 많다. 스카우트 지도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스카우트전북연맹 불교지도자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고 파라미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박동창(사진 우) 고등학교 교법사 역시 학생들에게 다정다감한 선생님으로 유명하다. 김종환 교장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금산중·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선배이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학생과 선생님간의 신뢰가 쌓이고 학생들도 잘 따른다고 그는 함박 웃음을 지어 보인다.

상업을 가르치는 박 교법사는 교내 수양조회 월례법회를 주관하며 매월 4째주 일요일에는 교직원들과 함께 금산사 가족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앎보다 실천중시"

금산중·상고 김종환 교장



지난 70년 3월 교법사로 부임해 금산중·상업고등학교에서 30년을 근무한 김종환 교장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실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바른 인성기르기'가 금산 교육의 정수라고 말한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덕목을 정해 실천하는 자율프로그램이다. 즉, 보시바라밀을 실천 덕목으로 정했다면 서로 돕고 베품으로써 자비심을 기르고 돈독한 정을 나누기 위해 부모님 일손 돕기, 전화예절 지키기,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씨 쓰기 등의 실천덕목을 정한 뒤, 1년간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이를 지켜 나가는 것.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해하는 한편, 현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김 교장은 자랑한다. 김교장은 또 학생들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학교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한가지라도 몸에 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동아리 탐방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선후배 정 두터워

금산중·상업고등학교 파라미타불교학생회는 선생님들 가운데 20여명이 불교학생회 지도위원으로 매달 만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한 정기법회는 물론 3월 신입생 환영법회, 10월 30일 개교기념 성지순례, 12월 학생간부수련회, 모범 회원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그 활동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더불어 부처님오신날에는 학교에서 봉행되는 관불법회와 인근 금산사 봉축법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호남지역 청년불교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파라미타불교학생회는 선후배간의 정이 돈독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어려운 법우가 있으면 서로 돕고, 졸업생들과도 잦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을 하면 불교활동이 시들해지는 다른 학생회와는 달리 이곳 졸업생들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학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후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불청 장기기증·화장문화 캠페인

지하철역등서 12월까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장기기증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5일 김규범 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대불청 회원들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장기기증 서명과 납골당 시설 이용 안내 등에 관한 장묘문화 개선 운동에 들어갔다.

대불청은 앞으로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 '장기기증을 합시다'와 '장묘문화를 개선합시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키로 했다. 또 대불청 회원들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각 역에서 시민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며 장기기증 서명도 받기로 했다.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에겐 볼펜과 엽주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

박현숙 대불청 사무차장은 "장묘문화 개선 운동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전개해 오던 시정참여사업의 일환"이라며 "생명나눔 실천운동에 청년불자들이 먼저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02)739-4448

청소년 단신

15~18일 백두대간 종주
새벽여는 청소년 모임

경주 새벽을 여는 아름다운 청소년의 모임(이사장 조충래)은 15일부터 18일까지 보현자연수련원에서 '백두대간 종주 캠프'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삼도봉을 출발해 화주봉, 우두령, 황악산, 궤방령, 추풍령 등을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또 백승혜 신라문화진흥원 이사를 비롯해 정구익 시립극단 에밀레 배우, 서예가 김영택 씨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들의 심성계발 강의도 곁들여진다. 12세 청소년이면 참가 가능하며,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8만원이다. (054)772-1950

홍덕사서 여름캠프
청주 디지털 상담실

청주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실장 홍자운)은 11일부터 2박3일간 흥덕사에서 '하계 캠프'를 열었다. 혜능보육원생 10명 등 50여명이 동참한 이번 행사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찬불가 배우기, 등반대회, 교리공부하기, 촛불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⑪

• 스트레칭 •



1. 두손을 양 무릎 옆에 짚고, 발가락을 밑으로 굽혀 오른 다리를 뒤로 쭉 편채 머리와 가슴을 든다.

2. '이' 소리를 내며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발을 보면서 부드럽게 뒤꿈치를 멀리 뻗고 무릎을 곧게 유지하면서 '이' 소리를 낸다. 무릎을 굽혀서 바닥에 닿게 한다.



단전 이용 숨쉬며
머리·양팔·몸통 흔들기

3. 숨을 들이마시면서 단전을 수축하며 천천히 다리를 다시 끌어들인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전수축과 이완으로 숨을 쉰다.

4. '뭐' 소리를 내면서 다른 다리로 반복한다.

5. '꼬'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고 두 다리를 쭉펴서 몸이 삼각형을 이루게 한다. 다음에는 두 다리로 팔 쪽으로 걸어온다.



6. 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양다리가 쭉 펴지게 한다. 몸에 있는 어떤 긴장감도 없이 머리, 양팔, 몸통을 느슨하게 하여 흔든다.

봉 연꽃당신, 부처님처럼! 축

삼보님께 지성귀의 하오며 제5회 무안연꽃대축제에
대덕하신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5 (서기2001)년 8월 25 (음 7.7)
– 8월 28일(음 7.10) 4일간
◈ 장 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리 연꽃방죽 (면적 : 10만 여평)
◈ 법요식 : 불기 2545(서기 2001)년 8월 27일 (음 7.9) 10:30
2002 월드컵개최 성공기원 수륙영산대재
선재스님 전통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
탁본 (사경) 현장체험
연화 및 달마도 전시 –진공스님 달마도 시연
평화통일 기원 연등 및 제등 행렬

봉행위원회
고 문 : 도솔천 법왕궁 세계법왕 김무해
자 문 : 법화종 전라교구종무원장 해봉
위 원 장 : 무안군 사암연합회장 경훈
위 원 : 정관, 법성, 죽림, 도현, 지오, 법주, 도용

무안군사암연합회
회 장 : 약사사 경훈
총 무 : 유달산 월정사 법성
재 무 : 죽림정사 정관
교 무 : 도덕사 죽림
섭 외 : 수덕정사 도현
회 원 : 호국사 해심, 수인정사 정선, 목우암 금산, 용덕사 종수, 성불사 정각, 법천사 지원, 불광사 선법, 봉불사 지오, 선혜정사 성원, 마곡사 정평, 미륵사 법주, 보평사 정암, 원갑사 정우, 육군충정 사자사

특별동참 : 세계불교 도솔천 법왕궁, CBS연합불교방송, 실내디자인전문 (주) 예화 대표 정희정

불기 2545 (서기2001)년 8월

무안군불교사암연합 봉행위원회 합장 전화 061-453-2422, 총무 061-245-5997